



꿈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1. 24.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 장 : 최 완 현
사무관 : 황 규 광
전 화 : 02-500-1737
쪽 수 : 4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0년 11월 2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농정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기초(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첫발 시동

- 첫 단계로 전국 3곳(시·군)에서 시범사업 추진 -

- 외환위기 직후, 농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발적 농정 참여 기구인 「농정 거버넌스, 가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꾸준히 주창돼 옴.
- 참고로, 지난 ‘98년에도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시도한 바가 있으나, 당시에는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지위 확보와 전국단위 조직을 우선 추진하려는 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재논의를 통해 지난 ‘98년도 농업회의소 설치 실패에 따른 경험과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농어업회의소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 특히, 농어업선진화위원회(‘09.4)에서는 현시점에서 농정협의체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면서 농어민단체의 역량 성숙을 고려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음.

- 또한, (사)국민농업포럼이 중심이 된 그동안의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주도로 시·군단위부터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의가 있어, 정부는 검토결과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간접지원을 할 계획.
- 동 단체가 금년 중 3곳(시·군) 시범사업 실시와 중앙단위 농정 거버넌스 논의기구 설립과 운영 지원, 시범지역에 대한 교육 컨설팅지원 등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됨.
- 따라서, 정부는 ‘98년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고, 그동안 농업인 단체 및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국민농업포럼 등의 제의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공통표준모델』을 마련 금년 중 시범사업 시·군 3곳을 선정할 계획임.
- 향후, 약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동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각층의 개선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시·군은 농어민·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될 「농어업회의소」를 농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이나 지역현안 등을 꾸준히 협의·조정함으로써 조기에 공동 결정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근, 정부 예산의 포괄보조금제 도입과 그 외 지역 현안 및 중요 사업 등을 종합·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정협의체가 설립·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따라서, 해당 시·군 관내 농정협의체인 「농어업회의소」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농정 참여를 이끌고 또한,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자립 기반이 자리를 잡아 가게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농어업인 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종합·조정 후 지역농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실행에 있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진 농정의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됨.

○ 그 동안 농정참여 방식이 단순 자문이나 의견수렴 정도로 그치는 등 다분히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시·군(지역)의 농정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농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임.

○ 특히, 이번 설립되는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지역의 농업 발전 농어민의 지위향상과 농정분야의 각종 의견이나 건의 등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지역농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앞으로, 시·군은 지역농정의 한 축이 될 「농어업회의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도, 일선 농어민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지역 농어업회의소가 성숙된 대의기구로 발전하고 조기에 자립기반 등을 갖추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농정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임.